

우주패권에 눈 돌리는 세계 부자들



데스크 칼럼

박선욱
국제부 부장

아마존 최고경영자(CEO) 제프 베이조스는 7일(현지시간) SNS로 자신 소유의 우주전문기업 블루오리진이 만든 로켓 '뉴셰퍼드'를 타고 우주여행을 떠난다고 발표했다. 발표대로라면 베이조스는 7월 20일 발사하는 블루오리진의 첫 유인 우주선 탑승자가 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자신 소유의 우주선에 탑승하는 첫 CEO로서 세계적 민간 우주항공 기업 간의 우주 패권 경쟁에서 일단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것으로 전망된다.

베이조스는 공개된 영상에서 "나는 5살 때부터 우주여행을 꿈꿔 왔다"면서 그의 동생 마크 베이조스도 동행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들과 함께 관심이 쏠리는 것은 현재 경쟁이 진행 중인 한 장의 좌석 티켓의 주인공이 누가 될 것인가다.

앞서 블루오리진은 지난달 5일 우주여행 로켓 '뉴셰퍼드'에 탑승해 우주를 여행할 관광객을 모집한다고 공고했다. 모집방식은 5주 동안 온라인 경매를 진행해 최종 낙찰자가 우주관광티켓을 차지하는 것이다. 블루오리진에 따르면 지금까지 140개 이상의 국가에서 약 6000명의 입찰자가 몰려들어 경쟁을 벌였다. 경매 시작한 지 2주일이 지나서 처음 공개된 입찰가는 140만달러(약 15억6000만원)였으나, 베이조스가 동행할 것이라 발표가 나자 입찰가는 350만달러(약 39억원)로 치솟기도 했다.

우주여행이라고 해서 꽤 오랜 시간 우주에 머물 것이라 예상하겠지만 실제로 뉴셰퍼드 로켓 여행자들이 우주에 머무는 시간은 불과 몇 분 정도이다. 로켓이 궤도를 모두 도는 것이 아니라 우주 가장자리까지



블루오리진의 우주 비행사 시뮬레이션 모습

Blue Origin

만 비행하기 때문이다. 물론 4-5분 정도의 짧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 동안 탑승자들은 거의 무중력 상태인 미세중력(microgravity) 상태를 경험하게 된다고 한다.

베이조스의 로켓 탑승 발표로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듯한 기분을 느낄 만한 사람이 바로 일론 머스크이다. 테슬라의 최고경영자 머스크가 운영하는 스페이스X는 지난해 5월 첫 민간 유인우주선 발사에 성공했다. 이 우주캡슐에는 나사(NASA)의 우주비행사 두 명이 탑승했고, 머스크는 자신의 첫 유인 우주선이 궤도에 오르는 것을 보면서 무척이나 감개무량한 모습을 보였다.

베이조스와 머스크는 포브스가 선정한 세계 부호 1, 2위를 다투는 사이다. 10일 기준으로는 베이조스

가 순자산 1770억달러(약 197조원)로 1위, 머스크는 순자산 1510억달러(약 168조원)로 세계 2위 부자로 등극했다. 이 부호들이 우주여행에 야망을 품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두 사람은 사업가다. 이들이 어릴 적 꿈을 이루겠다는 열망도 있었지만 현실적으로는 우주관광 개발 사업에 1차 목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장기적인 안목으로 지구가 아닌 다른 행성, 즉 달이나 화성에서 인류가 정착해 살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찾아나선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2018년 머스크는 스페이스X를 타고 달 여행을 할 민간인 탑승객을 모집했다. 그 결과 일본의 부호이자 패션계 거물인 마에자와 유사쿠가 2023년으로 예정된 로켓을 타고 달 주위를 비행하는 최초의 민간 승

객이 될 것으로 발표했다. 우주를 향한 머스크의 꿈 역시 베이조스 못지않다. 머스크는 언젠가 자신의 최종 목표는 화성에 유인 우주선을 보내 그곳에 살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또 "나는 화성에서 생을 마감하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런데 베이조스가 자신의 유인 우주선에 첫 탑승자로 널리 홍보가 되면서 경쟁자인 머스크에게 선수를 뺏긴다는 분위기가 조성되는 가운데, 베이조스의 행보에 찬물을 끼얹는 평가가 나와 이목을 끌었다.

미국의 호프스트라 대학에서 홍보학을 강의하고 있는 카라 알라이모 교수는 CNN 기고문에서 베이조스의 우주여행 소식을 접하고는 "제프 베이조스는 이곳 지구에서 더 이상 식민지로 삼을 것이 바닷난 것 같다"고 꼬집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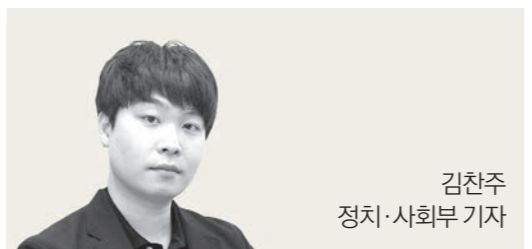
알라이모 교수는 미국에서 온라인 매출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아마존 CEO인 베이조스가 지구에서 더 큰 굼어모을 곳이 없어 이제는 시야를 외계로 돌리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가 바라보아야 할 곳은 '위'가 아니라 '아래'라고 지적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 전 세계가 고통을 받는 상황에서 아마존은 코로나 덕을 톡톡히 본 기업 중 하나다. 규모가 큰 만큼 그로 인한 이익도 어마어마하게 창출됐을 것이다. 알라이모 교수는 전 세계에서 극빈곤층에 속하는 사람의 수가 6억8900만명이라는 통계를 인용하면서 이들은 1.9달러(약 2100원)로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게다가 극빈곤층은 올해 말까지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이라고 한다. 이들을 위해 58달러를 기부한다면 어린이 한 명이 1년 동안 학교를 다닐 수 있다.

세계 1위 부호인 베이조스는 전 세계 대부호들이 사후나 생전에 재산을 사회에 환원할 것을 약속하는 '더 기빙 플레지(The Giving Pledge)'에도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워런 버핏과 빌 게이츠의 주도하에 일론 머스크, 마크 저커버그 등도 이에 동참했기에 베이조스의 인색함이 더욱 비교된다.

기자수첩

입에서 다시 터진 어뢰



김찬주
정치·사회부 기자

수장(水葬)이란 '물에 매장시키다'라는 뜻이다. 매장에는 '묻어서 감추다'라는 뜻이 있다. 이 말에는 행위의 주체에 대한 '고의성'이 내포돼 있다. 2010년 3월 26일 21시 22분경 북한 잠수함의 어뢰 공격으로 발생한 천안함 피격 사건에 이 단어가 사용될 경우, 당시 천안함 함장이었던 최원일 씨가 자신의 부하들을 '바다에 묻어서 감추다'라는 의미가 된다.

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이 이달 7일 채널A '뉴스톱10'에 출연, 천안함 폭침에 대해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이 생때같은 자기 부하들을 다 수장시켰다"고 말했다. 사회자와 다른 패널리들이 "위험한 말씀이다"고 주의를 줬지만 조 전 부대변인은 "자기 부하들 수장에 책임이 있다. 심지어 작전 중 부하들이 폭침당하는 순간까지 파악하지 못했다는 건 지휘관으로서 매우 무능하다"고 비난을 멈추지 않았다.

그러면서 "자기(최원일 함장)는 살아남았잖나. 그리고 예비역 대령으로 승진도 했다"고 말했다. 마치 부하들과 함께 수장됐어야 할 사람이 무슨 염치로 살아 돌아왔는지에 대한 지적인 듯 보였다.

이날 막말 파문이 일자 그는 작심한 듯 바로 다음 날 SNS에 글을 올려 "도대체 뭐가 막말이나"고 따져 물었다. 이어 "작전에 실패한 군인은 몰라도 경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할 수 없다는 군사적언이 있다. 당시는 한미연합훈련 중이었는데 함장 지휘관은 천안함이 폭침으로 침몰되는데도 뒤에 당했는지도 알지 못했다. 결국 46명의 젊은 목숨을 잃었는데 함

장이 책임이 없나"라고 반문했다.

조 전 부대변인의 연이은 망발에 야권은 비판을 가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나라 위한 희생은 반드시 기억되고 합당한 예우를 받아야 마땅하다. 국가가 이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다"고 지적했다. 김진태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은 "자기는 살아남았잖나라는 말엔 귀를 의심했다. 그렇게 따지면 625 때 살아남은 분들이 다 죄인인가"라고 비판했다.

여론도 기겁했다. 김야무개 씨는 언론 댓글에서 "조상호 같은 논리라면 625 전쟁도 쳐들어온 북한이 나쁜 게 아니라 당한 대한민국 잘못이나"고 분개했다. 이야무개 씨도 "천안함 순국 장병들을 두 번 죽인 발언이다. 나라의 부름을 받아 군에 끌려가 죽은 병사들은 이렇게 천대하면서 세월호 사고는 그렇게 신성시하는가. 이런 나라에서 사는 게 싫다"고 했다. 전쟁에서 수장(水葬)이란 적에 사용하는 말이다. "적군이 우리 해군을 격침해 수장시켰다"가 옳은 말이다. 나라를 지키러 천안함에 올라 임무를 수행 중인 국군 장병들에게 날아든 폭격으로 사지의 경계선을 넘나들었던 '아군(我軍)'에 쓰일 단어가 아니다.

조 전 부대변인은 여당 인물이다. 여당이란 '정부를 지지하는 한 무리의 정당'이란 뜻으로 정당정치에 있어서 정권을 담당하고 있는 정당이다. 때문에 국가의 중대사와 나라의 안위를 책임져야 한다.

하지만 국가의 중대사와 안보의 향방을 결정하는 여당에서 그들의 '임' 역할을 하는 '대변인'이 그 입에서 또 한 번 구뢰(口雷)를 터뜨려 생존 장병과 유족의 마음을 짓겨 놓았다. 국가의 부름을 받아 입대한 병사들은 국가가 매장시킨 것과 다름없는 무책임이다. 조상호 전 민주당 부대변인의 이번 수장 발언은 대한민국 정치와 군 역사에 남을 것이다.

공모주 투자 열풍... 기대 높으면 수익률 낮아져



윤승준
금융부 기자

지난해 공모주들의 높은 성과 덕분에 기업공개(IPO)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커졌다. 공모기도 예상보다 높은 수준에서 확정되고 있다. 다만 올해 상장한 기업들의 수익률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이다. 상장 직후 주가는 급등했으나 이후 하락하는 상황을 반복하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6월 기준 지난달 상장한 7개 종목(스팩재상장 제외) 중 SKIET 등 4개 종목만 공모가를 웃돌았다. 나머지 종목들은 공모가에 비해 낮은 가격을 보였다. 7개 종목의 전체 수익률을 합쳐도 18.5%에 불과하다. 93개의 종목이 상장했던 지난해 수익률이 68.5%에 달했던 점과 비교하면 저조한 성적이다.

특히 시초가 대비 수익률은 훨씬 저조했다. 올해 신규 상장 33개 기업(스팩재상장 제외) 가운데 시초가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곳은 6곳에 불과했다. 33개 종목의 시초가 대비 수익률은 -17.7%였다. 상장한 날 팔지 않으면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상장 첫 날 주가가 적정가치가 아니라는 의미로도 풀이된다.

이러한 공모주 가격 불안정 현상은 투자 열풍으로 인해 공모가가 지나치게 높은 수준에서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신규 상장사(33개) 가운데 18개의 공모가는 수요 예측 상단을 초과해 확정됐다. 희망가격 구간(희망밴드) 상단에 맞춰 가격을 확정 한 기업들도 14곳에 달했다. 합치면 총 97%(32곳)다. 증권업계도 이러한 현상을 우려하고 있다. 한화투

자증권은 9일 퍼낸 보고서에서 "기대가 높아지면 기대수익률이 낮아져 공모주에 대한 눈높이를 낮출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상장한 코스피 기업들의 공모가 대비 3개월 후 종가의 평균 수익률은 20.8%로 전년(64.3%) 대비 43.5%p 낮아졌다. 같은 기간 코스닥 상장 기업들의 수익률도 64.2%에서 39.1%로 급락했다.

코스피 상장 기업들의 성과가 상대적으로 부진했다. 아직 상장한 지 3개월이 안 된 SK바이오사이언스와 SK아이이테크놀로지 등의 공모가 대비 현재수익률은 138%, 36%를 포함해도 코스피의 평균수익률은 작년에 미치지 못했다.

심지어 2000년 이후 코스피, 코스닥의 신규상장 기업들 중에서 6개월 내 주가가 한번이라도 공모가를 밑도는 기업의 비율은 두 시장 모두 65%였다. 3곳 중 2곳의 상장 기업이 6개월 내에 공모가를 하회할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기대가 높으면 수익률은 낮아진다. 지금은 너무 과도하게 공모주에 자금이 몰리는 것 같다. 수익을 기대하는 게 투자의 기본이긴 하지만 이러한 과도한 몰입은 오히려 기대수익률을 감소시키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기업의 주가는 상장 직후 바로 결정되지 않는다. 기업의 실적과 미래 가치 등을 고려해 수십일 혹은 수개월 후에 결정된다. 시장의 기대를 한 몸에 받은 신규 상장사라도 주가가 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 신규 상장사를 공부하는 것이다. 미래가 기대되는 기업일 경우에는 과감하게 투자해야 하지만 단지 소문만 듣고 공모주 청약에 참여하는 것은 기대 수익 감소만 가져올 수 있다. 올해 하반기에 카카오펜드 등 대형 IPO 대어들 이 상장 대기 중이고 있다. 지금이라도 해당 상장사를 공부한 다음 투자를 준비해보자.